

말만 요란한 무등산 정상 공군부대 이전

국방부, 이전 대상지 선정 해놓고 후속 작업은 지지부진 비용 분담·대상지 주민 설득 등 광주시와 협의조차 안돼 “지역민 염원 무등산 복원, 정부가 강력한 의지 보여야”

지역민의 숙원인 무등산 정상 복원을 위한 공군 부대 이전 작업이 애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가 지역민의 염원을 반영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무등산 정상에 주둔하고 있는 공군 부대의 이전 대상지를 선정, 광주시에 통보했다.

광주시가 광산구 여등산 일대 등 3곳을 포함, 담양·무안·영광·장성군·전북 고창·군산 등 10개 대상 후보지를 전달했는데, 국방부가 해당 부지 중 한 곳을 선정해 통보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상지 선정만 했을 뿐 이전을 위한 후속 작업은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장, 부대 이전 대상지로 지목된 지자

체(주민) 반발을 고려한 설득 작업에 나서는 커녕, 부대 이전 및 정상 복원을 위한 연도별 계획 수립에도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시가 애초 2017년 부대 이전을 공식화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대 이전 비용 분담 방안, 대상지 주민 설득 작업이 시급히 진행돼야 하지만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환경단체 등 주장이다.

급기야 공군 부대 측은 당초 전남도 등과 합의했던 무등산 정상 방공포대 시설 중 교회·사찰 철거에도 소극적 입장을 보이는가 하면, 시민들의 정상 복원 염원을 위한 ‘정상 개방 행사’에 반대하는 등 ‘반(反) 무등산 정상 복원 행보’를 펼치고 있다.

공군 부대측은 시민들의 요청에 따른 광주시의 정상 개방 요청에도 불구하고, ‘수용 불가’를 내세우다가 하면, 환경 파괴 우려가 있고 있는 신규 등산로 개설 계획을 주장해 물의를 빚고 있는 형편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올 봄 국방부의 공식 문서를 통해 부대 이전 대상지가 선정된 것을 확인한 것 이외 연도별 이전 계획 등은 현재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무등산 정상 개방 행사를 전면 불허하기로 방침을 세운 공군 부대 측은 지역 여론을 감안, 다음달 초 광주시와 무등산 정상 개방 여부에 대해 협의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세월호 CCTV 복원 영상 진도 실종자 가족 등에 공개

세월호 침몰 사고 30여년 전까지 단원과 학생과 일반인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에 진도 실종자 가족 등에게 공개됐다.

여객선 내 CCTV 영상저장장치(DVR)에 담긴 이 영상은 22일 오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세월호 실종자·희생자 가족, 변호인 등 2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됐다.

2개월 이상 바다에 잠겨 있다가 건져져 전문업체가 복원한 이 DVR 영상에는 학생과 일반인의 평온한 모습이 담겨 있고 화질 상태도 좋은 것으로 확인됐다.

단원고 학생 등이 세월호에 탑승한 날인 4월 15일과 사고 당일인 16일 오전 8시 30분 59초까지 영상이다. 이 DVR은 2분 후인 33분에 꺼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들이 원하는 시간대인 사고 당일의 안내데스크, 카페 등이 있는 3층을 시작으로 상영된 영상에는 학생들이 침몰 위험을 감지하지 못한 채 해맑은 모습으로 물러다니는 모습 등이 찍혔다.

영상을 본 한 변호인은 “학생 10여 명이 좌현 복도 쪽으로 우르르 몰려가 바다를 가리키며 사진을 찍는 등의 특이한 행동을 보였을 뿐 3층에서는 별다른 이상 징후는 없었다”고 전했다. 법정 검증 작업에 나선 가족들은 3층을 시작으로 4층 등이 찍힌 영상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5시간 넘게 지켜봤다. 실종자 가족의 법률대리인 배의철 변호사는 “이 CCTV 영상을 복사해 진도 뿐 아니라 안전에서도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이 볼 수 있도록 상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상 검증 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영상에는 전기적 요인 등으로 정전 사고가 발생한 탓에 침몰 전후의 상황이 담기지 않았다.

/연합뉴스



광주 도심 지반침하...구멍 뚫린 도로

지난 23일 광주시 서구 품양동 롯데마트 인근 도로에 지름 50cm·깊이 1.5m의 구멍이 발견됐다.

광주시 서구는 “도로 밑을 지나가는 오수가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면서 주변 토사 등이 침하돼 생긴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과 유수관 내부 이음매가 파손되고 장시간

크를 현상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월부터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광주·전남에서 싱크홀 발생건수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벌초 조심

이른 추석 벌 쏘임사고 급증...예초기 사고도 주의해야

올해 38년 만에 가장 이른 추석(9월8일)을 앞두고 예년보다 일찍 벌초가 시작되면서 말벌에 쏘이거나 예초기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하다.

21일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와 전라남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매년 여름철(7~9월)에 말벌 쏘임 사고에 따른 출동과 발집 제거처리 건수가 집중되고 있다.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벌 쏘임 사고는 ▲2011년(532건) ▲2012년(471건) ▲2013년(659건)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간 여름철인 7~9월 구급대에 의해 이송된 응급환자 수는 전체 1662명 중 1418명으로 85.3%를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11년(86.2%) ▲2012년(93.2%) ▲2013년(83.0%)로 정마철이 끝난 직후 벌초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벌 쏘임 사고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말벌의 독은 일반 벌의 15배에 달하는 데다 계속해서 침을 쏠 수 있어 자칫 생명이 위협할 수도 있다. 만일 벌에 쏘이게 될 경우 신용카드 등으로 벌침을 밀어 제거하고 최대한 빨리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또 벌초 시 벌 쏘임 사고만큼 예초기 사고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전남 소방본부 119구조통계 기준 예초기 안전사고는 ▲2010년(29건) ▲2011년(23건) ▲2012년(34건) ▲2013년(33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예초기 사고 피해는 ▲피부가 찢어지는 열상(43.7%) ▲파편에 의한 안구·시력 손상(36.0%) ▲눈에 이물질 발생(10.1%)순이다.

예초기 사고 시점은 장마가 끝난 8월과 10월에 집중되는데 이는 1년에 한 두번 다루는 예초기가 익숙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돼 벌초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광주시소방본부 관계자는 “벌초작업 시 벌을 자극할 수 있는 강한 향수·화장품은 사용하지 말고 긴 팔, 긴 바지를 꼭 챙겨입어야 한다”며 “산소 주위에 벌집이 있는지 확인하고 예초기 사용 전 장비상태 점검, 보호안경 및 정강이보호대 등 안전장비를 꼭 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기용 수습기자 pboxer@

음란행위 혐의 인정·사과 김수창 전 지검장 검찰 송치

제주지방경찰청 성폭력수사대는 22일 오후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입건된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 12일 오후 11시 32분께 제주시 중앙로(옛 제주시 이도2동) 한 음식점 인근 2곳에서 5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지검장은 옷차림이 비슷한 사람을 경찰이 오인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22일 경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한 직후 법률 대리인인 문성운 변호사 통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가 명백해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교장·교감 등 정기인사 단행 광주·전남교육청

광주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은 9월1일 자 교장·교감·교육전문직 110명과 교사 145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지난 22일 단행했다. (명단 22면)

이번 인사에서 본청 교육국장에게 감성령 정책기획관을 전보 발령했다. 정책기획관에는 김용배 미래인재교육과장, 교육과정과장에는 신승원 광주부추추 교장을 임용했다.

교원인사과장에 장영신 서부교육청 초등교육지원과장, 미래인재교육과장에 이승우 교육과정과 중등교육과정 장학관이 승진해 자리를 옮겼다.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만재)도 이날 교장 179명, 교감 104명 등 283명에 대해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부부싸움 끝 자살 기도... 119구조대 출동 난간 매달린 아내 구조

남편과 말다툼 끝에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자살을 기도한 50대 여성이 신고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무사히 구조.

○...광주북부경찰 등에 따르면 이모(여·53)씨는 24일 새벽 1시10분께 광주시 북구 문흥동 A아파트 11층 발코니

난간에 매달려 있던 중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북부소방서 119 구조대에 의해 20분 만에 구조됐다는 것.

○...이씨는 자신의 남편이 손목을 붙잡고 버티던 탓에 목숨을 건졌는데, 담당 경찰관은 “사소한 시비 때문에 소중한 목숨을 잃을 뻔했다”며 안도의 한숨을 /박기용 수습기자 pboxer@

상가건물매매

7층 사무나 건물

북구 우산동 안보화관 사거리 무등 정맥상사거리 7층 건물 사무나 건물

대지 96평 / 건평 570평

월수익 800만 주민주택 운영시 1,100만

현재성업중!

매가 11억 (보2억 용4억5)

1. 나주 삼영동 영강초교 앞 2층 상가건물
대지 205평 1층 100평(전용 70평) 2층 80평(전용 70평) 6칸
매가 2억5천 월 보증금 2천 월 200만원
2. 목포시 용해동 전원주택
목포시 용해동APT 단지전 전원주택
대지 310평 주택 2개 50평 무화과 나무 식재
월 보증금 2천 월 110만원
3. 북구 우산동 4층 상가주택 건물
대지 120평, 건 500평 월수익 900만
매가 10억
4. 커피숍 급매매(중심사 중심도로 1층)
1층임대 약 80평 시설완비 최고위치 성황리 영업중
식사 및 커피전문점

신한 010-6670-9800

동네 어르신들과 고객들을 가족처럼 모시겠습니다

시티옥사우나

새단장 오픈

(구)도시대중사우나

오픈행사
8.1~9.30까지

3만원 이용시 티켓 13매 무료
6만원 이용시 티켓 30매 무료
16만원 이용시 티켓 100매 무료

경품권 추천

- 1위 세탁기 (30만원 상당)
- 2위 무료티켓 (10만원 상당)
- 3위 무료티켓 (6만원 상당)

직원 구함
여 - 카운터
남 - 청소 및 관리

대신시티빌딩 시티옥사우나

북구 우산동 518-80번지 안보화관 옆

010-6832-9700

신축원룸매매

용봉지구

전대 상대 5분
르까프 매장 뒷

용봉지구 미래도 APT코너

룸21개
전망좋은
1층상가 2칸,
4층 주택, 옥탑 1개
엘레베이터 완비, 장남향
전면 대리석 벽돌시공

매가 11억8천
(보2억 용3억)

월수익 900만
(1년 수익 1억1천)

신축원룸매매

전대 2분, 신축 4층
전대 정문 2분, 후문 2분

룸12개
1층 점포2개
4층 주택

월수익 500만
매가 6억7천
(보4천 용1억2천)

대신

010-6832-9700

(주)대신경매

경매의 모든것을 가족처럼 편안하게 컨설팅 합니다.
건축분야·신축·설계·리모델링 무료 컨설팅 해드립니다.

근린시설

- 북구 매곡동 근린시설(토지1735㎡, 건2303㎡) 감정 30억6, 최저21억(유통마트적합)
-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근린시설(토지1599㎡, 건17380㎡) 감정 223억, 최저223억(상무지구 중심가)
- 서구 치평동 근린시설(토지4756㎡, 건1478㎡) 감정 276억, 최저276억(상무지구)
- 북구 신안동 근린시설(토지951㎡, 건2652㎡) 감정 26억, 최저11억(신안사거리 대로변)
- 북구 오치동 근린시설(토지338㎡, 건659㎡) 감정 5억, 최저5억(오치대로변)
- 동구 대인동 근린시설(토지780㎡, 건1992㎡) 감정 24억, 최저17억(대인동 대로변)

근린주택

- 북구 두암동 근린주택(토지112㎡, 건200㎡) 감정 3억8천, 최저1억1천(두암동)
- 북구 유동 근린주택(토지229㎡, 건608㎡) 감정 1억6천, 최저2억6천(유통 대로변)
- 동구 충장로 근린주택(토지155㎡, 건454㎡) 감정 3억4천, 최저1억9천(충장로 530코너)
- 북구 오치 근린주택(토지69㎡, 건114㎡) 감정 1억6천, 최저7천4백(오치동)
- 북구 운암동 근린주택(토지69㎡, 건114㎡) 감정 7천2백, 최저5천(운암동)
- 북구 신안동 근린주택(토지138.8㎡, 건202㎡) 감정 2억4천, 최저1억7천(신안동)

호텔

- 광산구 쌍암동 호텔(토지1182㎡, 건2289㎡) 감정 32억, 최저22억(쌍암동 코너)

대지

- 동구계림동 대지(토지511㎡) 감정 6억9천, 최저3억8천(광주공단 옆)
- 광산구 소촌동 대지(토지1956㎡) 감정 20억, 최저14억(광주공단로, 송정역 부근)

경매 직원구함, 부동산 직원구함
경매가족처럼 가족처럼 같이하실분/사무실 공동사용/공동투자가능합니다.
(경매, 부동산 컨설팅, 건설, 시황, 설계, 부동산관련 전체를 취급합니다)

커피숍 급매매(중심사 등산로 중심도로 점)

보3천 월300만 시설비 별도 최고시설

(주)대신 010-6670-9800

상가매매 수익성상가

1. 수원지구 상가매매3층 한솔빌딩(4층3층) 85평 신안은행 뒤.모아엘가A 상가임대 매가7355천(보3천 용2억5) (월수익 200만, 1년 2400만)
2. 수원지구 상가 매매 3층(엘스타빌딩)(4층3층) 62평 롯데마트 옆 서 하남 공단 쪽매가 2955천(보2천 월 150 용9천)
3. 첨단지구 상가매매2층(대성오션스파) (6층중 2층) 62평(부영APT임) 매가1억7천(보1천 월70 용9천)
4. 나주시 상영동 2층 학원건물매매 매가2억5천(토지205평 건135평 용1억2천)
5. 북구 신안동 2층 상가주택매매 매가 4억2천(신안사거리 무등경기장 쪽)
6. 목포시 용해동 전원주택 (대340, 전 50 주택 2채 매가 3억1천)

1. 생촌동원룸형 오피스텔매매(2층)운전석 1번 출구 2분(울수리 전체제품 신규교체 임대관리, 주민주거가능)
①11평 매가3천4백(보200 월27 용1천)
2. 상무지구 오피스텔매매(3층 정면)(한국은행 앞 상무지구 현대 APT임) 30평 매가 1억8천 할인가 → 1억5천(용 6천가능)
3.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6층 매매48평(사무실인테리어 무료제공) 매가 1억5천 할인가 → 1억2천 (즉시입주가능 사비없음)
4. 상무지구 오피스텔 매매(6층)
①15평(수립)6층롯데마트 동쪽인근 위치매매매가 8천
②10평(수립6층) 임대보증금 5백-38만원 매매가 5천만원
5. 북구 우산동 사무나 건물 7층 (대96, 건564) 수익 900 매11억
6. 광산구 오월드 8층 건물(대500천, 건 700) 1층 상가 120평 룸 58개 월수익 2500 매가 35억
7. 신축원룸 4층 북구 용봉지구 룸 21개 월수익 8001층상가 2, 4층 주민주택 매가 11억8천
8. 신축원룸 4층 북구 중흥동(전대정문 2분) 룸 121층 점포1칸, 4층 주택 월수익 500 매가 6억7천

신한 062-521-1060